

# 오월예술 전인한 목판화 '새겨 찍은 시대정신'

19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민중미술가 이상호·홍성담 등  
광주전남미술인공동체 단체작  
'광주민주항쟁도' 역작 한눈에

목판화의 날카롭고 섬세한 미감에는 민중의 고단한 삶과 그날의 상흔이 각인돼 있다. 광주시립미술관은 오월예술의 정수, 목판화 기획전 '오월예술 2024: 목판화-새겨 찍은 시대정신'을 오는 19일까지 연다. 미술관 소장품을 활용한 이번 기획전은 전체 목판화 소장품 560여점 중에서 75점을 선별해 광주 민중미술의 흐름을 보여준다. 광주전남미술인공동체 창작단(단체), 김봉준, 김억, 김진수, 안한수, 이상호, 이준석, 전정호, 조진호, 홍선웅, 홍성담, 홍성민 등 1개 미술단체와 한국 현대미술사에서 민중미술 관련으로 언급되는 주요작가 11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목판화는 민중미술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또는 형태를 반복 제작해 알릴 수 있어 적극적으로 쓰였다. 시대의 미술가들은 접하기 쉬운 자연소재인 목판을 통해 우리나라 현실과 사회에 대한 제언, 민족의식 등을 논했다. 때로는 굵고 섬세한 선으로 완성된 강렬한 음영의 이미지는 호소력 짙은 형상을 찍어냈다. 언론이 통제된 5·18 시기 목판화 작품이 쏟아져 나온 이유다.

전시는 두 개 섹션으로 나뉜다. 첫 번째 '형상을 새기다 1: 그날'은 민중미술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5·18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구성했다. 오월 그날의 모습을 담은 작품을 통해 역사적 송고함



김진수 작 광주민주항쟁도.

광주시립미술관 제공

과 가치를 다시금 느낄 수 있도록 했다. 관련 작품들은 계엄군의 만행을 고발하고 희생자를 위로하는 형태로 발현돼 많은 사람에게 오월의 현장을 알렸다.

김진수의 '광주민주항쟁도'는 5·18민주화운동 10일간의 항쟁을 한 화면에 담아낸 역작이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8년 뒤 제작된 작품으로 작가는 과거부터 현재가 이어져 있는 민중의 모습을 담아내고자 했다. 하늘을 상징하는 상단에 강점기 해방운동과 땅을 상징하는 하단에 오월 광주의 모습까지 확장된다. 현재를 상징하는 하단의 광주는 좌측에 있는 차량 행렬을 하는 시민군과 밥을 나눠주는 사람들, 민주화 운동 시위 현장으로 구성된 다. 다음으로 가운데 계엄군의 만행과 파

괴된 도청 앞 분수를 지나, 우측에 배치된 1980년대 한국의 사회까지 담았다.

이상호 화백의 민중항쟁시리즈도 눈에 띈다. 진보적이고 강렬한 작품 활동으로 대학 시절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수모를 겪은 그는 현재까지 민중미술을 이어가며 2000년대부터 불교적 도상과 표현법을 활용하고 있다. '민중항쟁 시리즈'는 1987년 6월 항쟁에 대한 작가의 기억과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한 작품이다. 작가는 백골단에게 작가 본인이 쫓겼던 경험, 최루탄의 매캐함에 구토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시민을 목격했던 경험, 중앙로에 있었던 대형집회에 대한 기억을 작품에 담아냈다.

80년대 민중미술을 선도한 홍성담도

빠놓을 수 없다. 그의 '햇볕행진'은 '오월 연작 총 50점의 판화로 구성된 작품 중 하나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현장을 서사시 형태로 제작했으며, 1980년 도청 앞 시위부터 계엄군 진압, 시민군 항쟁과 도청 발포까지 담아냈다. 또한 작품에는 오월 현장만이 아니라 희생자와 시민군, 주목받을 만들어 주는 상인까지 다양한 광주 시민을 형상화한 작품도 포함돼 있다.

두 번째 '형상을 새기다 2: 삶'은 급격한 경제발전을 겪은 한국 사회에 대한 현실의 문제에 대한 발언을 다룬 작품들로 구성했다. 특히 농촌과 도시, 노동자, 환경 파괴, 역사와 민족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루는 목판화 작품을 소개하는 의의가 있다.

안한수의 목판화에는 농어촌의 풍경이

나 그곳 사람들의 생활상을 단순히 회화적 소재로 선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의 애뜻한 정서와 분노에 찬 현실 감정이 담겨있다. 폭풍우 속에서 배를 끌어올리는 사람들의 '태풍대비'는 치밀한 칼질의 반복으로, 쏟아지는 빗살과 파도가 칠 때 일어나는 포말을 새겨넣어 안한수의 손필림과 정밀하게 파고드는 성격과 사실적 묘사력이 결합된 작품이다.

광주시립미술관 김준기 관장은 "한국 현대사의 진통을 보여주는 역사적 가치와 고유의 아름다움을 지닌 목판화를 미술관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며 "작품을 통해 오월 광주를 느끼고 동시에 목판화만이 주는 미감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 “ACC서 아시아 15개국으로 문화여행 떠나요”

4~6일 2024 아시아컬처마켓  
아시아 셀러 34개 부스 참여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아시아의 문화를 체험하고 다양한 먹거리와 문화상품, 예술 공연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문화장터가 펼쳐진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ACC 아시아문화광장에서 아시아 문화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2024 아시아컬처마켓: 도시 속 문화장터'를 개최한다.

올해 아시아컬처마켓은 인도, 튀르키예, 파키스탄 등 아시아 15개국의 셀러가 참여해 총 34개 부스를 운영한다.

먼저 마켓에서는 인도네시아 소품, 튀르키예 양탄자, 인도 헤나, 파키스탄 수공예 등의 아시아 문화상품을 선보인다.

이어 캄보디아 꽃화관 꾸미기, 베트남 논라 모자 꾸미기, 중국 궁선(전통 부채) 만들기, 일본 네코팔찌 꾸미기, 요요츄리(물풍선 낚시) 체험 등 아시아 각국의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아시아의 타악기 클래스, 전통 의상·놀이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아시아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또 우즈베키스탄의 솜사, 사슬릭, 중국 탕후루, 베트남의 생코코넛 음료 등 다양한 아시아의 먹거리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아울러 한국의 전통 사자놀이, 중국의 변검, 베트남 띠마오 등 아시아의 공연이 펼쳐지고, 5월 5일 오전에는 상무대 군악대의 특별공연도 진행돼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줄 예정이다.

행사 기간동안 관람객들은 아시아 각국의 문화 상품과 먹거리, 즐길거리를 통해 오랜 세월 동안 서로 교류하며 영향을 주고받은 아시아 문화의 다양성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시아컬처마켓과 기간 동안 관람객들을 위한 아시아 스탬프 투어, 얼리버드 이벤트, MC 케릴라 이벤트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풍성하게 준비된

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www.ac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선옥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사장은 "2024 아시아컬처마켓은 아시아와 지역을 문화로 연결하는 행사"라며 "이번 행사가 조화와 포용 속에 다채롭게 발전한 아시아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도선인 기자**



전남문화재단이 오는 17일 목포 영흥고부터 '어?! 마한 이야기' 시즌2 초청강연회를 시작한다. 사진은 지난해 나주교에서 진행한 초청강연회의 모습. **전남문화재단 제공**

## 한국사 전문가 '최태성·심용환'의 마한 이야기

'어?! 마한 이야기' 시즌2  
17일부터 목포 영흥고부터

전라남도도와 전남문화재단(문화재단연구소)이 오는 17일부터 목포 영흥고를 시작으로 '어?! 마한 이야기' 시즌2 초청 강연회를 추진한다.

이번 강연회는 오는 17일부터 7월 10일까지 전남 도내 청소년 및 일반인 대상으로 총 5회로 기획됐다. 강연을 통해 지역민에게 고대 해상왕국 마한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알리고 과거 마한인의 숨결이 마지막까지 이어진 전남의 역사적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한다.

강연은 도내 중·고등학교 중심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유명 역사 전문강사 최태성·심용환이 마한역사문화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치있는 입담으로 강연할 계획이다.

최태성 강사는 EBS '큰별쌤'으로 널리 알려졌다. 'KBS1 방과후 초능력', 'tvN

벌거벗은 한국사' 등 TV와 유튜브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한국사 강사이다.

심용환 강사는 역사N교육연구소 소장으로서, 유튜브 '현재사는 심용환', 'KBS1 역사저널', 'tvN 어쩌다 어른' 등 각종 방송 출연을 했고 쉽고 재미있게 역사 이야기를 전하는 역사학자이다.

한편 2023년에 진행했던 '어?! 마한 이야기' 시즌1은 도내 6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생, 교직원, 학부모, 일반인 등 1300명의 인원이 참석해 마한역사문화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흥미를 끌었다.

김은영 전남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마한역사문화 교육사업을 통해 청소년을 비롯한 대중들에게 전남의 지역사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마한의 역사적 가치를 다채롭고 현대적 방향으로 제시함으로써, 마한역사를 제대로 정립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